

# 고르바초프 權力の 現況과 展望

1991. 5. 7

姜元植(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本 資料는 統一政策 立案의 參考資料로 作成한 것으로서  
모든 內容은 論文作成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當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힙니다.

# 目 次

1. 體制危機의 內容	3
가. 經濟危機의 심화	3
나. 強硬急進勢力의 고르바초프 사임 요구	4
다. 分離主義的 共和國의 聯邦脫退 노력 지속	4
라. 軍部の 政治介入 증대	5
마. 反고르바초프 광부 파업 지속	6
2. 評價와 展望	6
가. 고르바초프의 大統領·書記長 任期 제도적 보장	6
나. 고르바초프를 중심으로 各政派間 타협 모색	7
다. 軍事獨裁政權 출현 가능성 희박	9
라. 광부 파업 진정 가능성	10
마. 民主化의 계속 추진	11
바. 經濟危機 극복 위한 노력 강화	11
사. 新聯邦條約 體制의 추진	12

빈 면

## 1. 體制危機의 內容

페레스트로이카 추진 6년동안 소련의 국내정세는 政治的 民主化로 사회가 다원화된 반면에 經濟的 成果가 부진한 결과, 소비재 품귀 및 광부파업 등의 경제위기와 함께 다양한 정치조직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대립하게 되어 危機狀況을 맞고 있음.

### 가. 經濟危機의 심화

- (1) 현재 소련이 직면하고 있는 危機의 일차적 배경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經濟難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위기가 진정·극복되지 못할 경우, 이는 現體制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2) 연방정부는 올해 15~20%의 국민소득 저하를 예측하고 있지만 소련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큼.
  - 1991년 1/4분기 工業生産은 전년동기 대비 -5%로 전후 최악을 기록하였으며, 국민소득은 12%가량 저하됨.
  - 4.2 소비자물가 인상조치로 市場의 불균형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연방정부의 임금·연금 인상 등 보상조치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증가됨. 한편 각 공화국이 연방정부에 징수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財政赤字는 더욱 가중되고 있음. 당초 1991년도 재정적자 예상분은 267억 루블(454억 달러)이었으나, 1/4분기 동안 이미 311억 루블(530억 달러)에 달함.
  - 소비자물가 인상과 함께 최근 賃金引上 요구는 100%에서 600%까지 이르고 있음. 高인플레이는 피할 수 없음.

### 나. 強硬急進勢力의 고르바초프 사임 요구

- (1)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집권 이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국민

적 지지를 바탕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기득권의 상실을 우려한 保守派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 1990년 이래 보수파와 타협, 穩健改革路線을 추구함.

- 엘진을 위시한 急進改革派는 경제난 가중으로 인한 대중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1990. 7 제28차 당대회에서 개혁주류세력으로부터의 분리를 선언했으며, 독재출현 위험을 경고한 세바르드나제 외상의 사임 이래 개혁의 대변자로 자처, 고르바초프 진영을 反개혁적 보수세력으로 매도함. 엘진은 지난 2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음.
- 한편 강경보수세력의 아성으로 알려져 있는 「소유즈」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개혁노선이 초래한 失政을 비판하면서 공공연히 退陣을 요구해 왔으며, 최근 4. 24~25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는 고르바초프의 서기장직 축출을 시도함.

(2) 이와 같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穩健改革路線에 반대하는 강경보수파와 급진개혁파의 桃戰은 고르바초프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하고 소련의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켜 옴.

다. 分離主義的 共和國의 聯邦脫退 노력 지속

- (1) 소련은 15개 공화국, 130여 민족으로 구성된 多民族國家로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추진되면서 그간 억압되어 온 민족갈등이 표출되어 구공화국들이 주권과 독립을 선언, 소연방체제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음.
- 연방존속 여부에 관한 3. 17 國民投票에 발트3국 및 몰다비아,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등 6개 공화국은 불참함.
- 지난 2~3월간 발트3국은 독자적으로 실시된 聯邦脫退 獨立

에 관한 住民投票(리투아니아 91%, 라트비아 74%, 에스토니아 78%의 찬성) 결과, 脫蘇 獨立 요구를 강화함.

- 그루지야는 3. 31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90. 5%의 투표율에 98. 9%의 찬성으로 연방분리독립이 거의 만장일치로 지지됨에 따라, 공화국 최고회의는 4. 9 獨立을 공식 선언하였으며, 4. 10 공화국내 南오세티야 자치주에 대한 소련군 배치에 항의, 총파업에 돌입함.
- 아르메니아는 오는 9. 21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임.

- (2) 연방 최대 공화국인 러시아共和國 人民代議員大會는 4. 5 열린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에게 잠정적으로 非常大權을 부여하는 한편, 공화국 대통령 직선을 6. 12 실시하기로 결의함. 이에 따라 열린 의장은 연방대통령과 비슷한 권한을 갖고, 공화국내에서 급진적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됨. 이는 고르바초프 聯邦大統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동시에, 러시아공화국의 러시아 민족주의와 함께 聯邦體制危機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라. 軍部の 政治介入 증대

- (1) 페레스트로이카의 진전에 따라 지배이데올로기로서의 마르크스·레닌主義와 지배도구로서의 共產黨 一黨獨裁體制가 위기를 맞이하면서 1990년 이래 軍과 KGB의 연방정책 집행도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부각되었음. 이에 따라 蘇聯軍部の 영향력이 증대되었으며, 동서화해와 군축의 결과 동구에서 귀국한 소련군의 무주택 및 실업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軍部の 利害를 반영한 軍人의 政治的 組織化 現象이 나타남.
- (2) 최근 軍部는 人民代議員大會의 강경보수파그룹 「소유즈」에

적극 참여하고, 1991. 1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에 무력개입 하는 등 과거 소련사에서의 전통과 달리 적극적으로 政治에 개입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軍事獨裁政權 수립 가능성까지도 예측하고 있음.

#### 마. 反고르바초프 광부 파업 지속

- (1) 1991. 3 이래 화폐개혁·물가인상 반대 등 주로 경제문제로 시작된 石炭鑛夫 罷業은 현재 고르바초프와 연방정부의 퇴진 및 인민대의원대회 해산 등을 요구, 政治問題로 확산되고 있으며, 120만 광부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30만명이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2) 한편 이번 罷業은 철강업을 비롯한 연관산업에 타격을 주고, 전체경제에도 이미 수십억 루블에 이르는 손실을 끼친 것으로 평가됨.

## 2. 評價와 展望

최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權力基盤에 대한 위와 같은 挑戰이 증대되고 있어 蘇聯은 體制危機에 직면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요인에 비추어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집권, 각정과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政局安定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가. 고르바초프의 大統領·書記長 任期 제도적 보장

- (1) 고르바초프 蘇聯 大統領 겸 共產黨 書記長은 黨과 國家의 최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 (2) 聯邦 大統領은 5년 임기로 인민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고 대통령의 탄핵은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바, 현재 人民代議員大會의 構成이 급진개혁파 15%, 강경보수파 15%, 그리고 나머지 70%정도가 안정을 추구하는 중도 온건세력임을 감안하면, 1990. 3 대통령으로 선출된 고르바초프는 헌법개정이 없는 한, 적어도 1995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3) 共產黨 書記長은 종래 黨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되었으나, 서기장 선거제도가 1990. 7 제28차 당대회에서 黨大會의 代議員 直接選舉로 변경됨에 따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臨時黨大會가 개최되지 않는 한, 적어도 1995년 次期 黨大會 개최시까지 서기장으로서 黨權을 장악할 수 있음.

#### 나. 고르바초프를 중심으로 各政派間 타협 모색

- (1)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개혁·보수 兩派間의 조정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고르바초프를 능가하는 政治指導者가 출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고르바초프의 권력기반은 안정적이라 할 수 있음.
- 엘진 등 急進改革派는 인민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으나 黨·軍 등 제도적 권력기반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軍·黨官僚를 중심으로 한 強硬保守派는 제도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나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결여하고 있음.
  - 이번 黨중앙위 총회에서 고르바초프 지도체제에 도전한 「소유즈」는 인민대의원대회 대의원 총 2,250명 가운데 300여명의 멤버를 가지고 있음. 또한 급진개혁을 지향하는 民主綱領派도 黨대회 대의원 5,500여명 가운데 2%인 110명에 불과한 멤버를 갖고 있음. 즉 左右 急進勢力들은 목소리는 높

으나, 스스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에는 역부족임. 따라서 현재로서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黨에서나 人民代議員大會에서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실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2) 현재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保·革間의 力學關係를 고려한 정치력을 발휘함으로써 온건중도세력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고 있음. 즉 집권이래 계속 政敵을 제거하면서 권력기반을 확대하여 온 고르바초프는 최근 政敵을 포용하면서 支持基盤을 확대하고 있음.
- 고르바초프는 1990. 7 제28차 당대회를 계기로 보수파를 포용하여, 파블로프 총리, 푸고 내무장관, 야나예프 부통령 등을 기용하는 동시에, 폴로스코프 러시아공산당 제1서기와 타협함.
  - 한편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소유즈」 등 強硬保守勢力의 반대에도 직면, 4. 23 열전 등 9개 공화국 지도자와 정치적 연합을 이룩한 후 書記長과 大統領의 겸직 필요성을 강조, 공산당내 강경보수파의 서기장 사임압력을 무력화시킴.
- (3) 향후 蘇聯의 정국 운용은 危機打開策을 중심으로 보수와 개혁 양파간 또는 연방정부와 구성공화국 간의 協力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립정부 구성 또는 원탁회의 등의 방법으로 타협될 가능성이 있음.
-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현재의 危機狀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분리주의적 공화국의 民族主義勢力 및 러시아공화국 등 民主野黨勢力과의 권력공유나 원탁회의를 통한 協商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急進改革派는 고르바초프 퇴진 요구가 정치구조 변화 없이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세력의 등장을 촉진시킬 뿐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強硬保守派는 국민의 지

- 지를 얻고 있지 못하므로 保守·改革 兩派는 공히 온건조정  
자로서의 고르바초프와 협력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음.
  - 4. 20부터 모스크바에서 리가초프 前정치국원, 세바르드나제  
前외무장관, 하스블라토프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부의장,  
포포프 모스크바 시장, 바카틴 안보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  
한 가운데 汎政派 元老會議가 개최되어 위기 타개를 위한  
협상과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4. 23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9개 공화국 지도자(발틱3국, 그  
루지야, 아르메니아, 몰다비아 등 6개국 제외)와 회합하여  
위기 수습에 합의함.
- (4) 이에 따라 蘇聯의 危機狀況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경제위기와 연방문제의 발전여하에 따라 새로운 難關에 봉착  
할 가능성은 상존함.

#### 다. 軍事獨裁政權 출현 가능성 희박

- (1) 蘇聯軍部の 정치적 조직화와 함께 政治介入이 증대되고 있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련에서 軍事獨裁政權이 수립될 가  
능성은 희박함.
- 軍은 보수적 최고지도부와 급진적 청년장교의 대립, 민족문  
제에 따른 내부적 알력, 非現地主義 원칙의 와해, 병사들의  
사기 저하 등 內部問題를 안고 있어, 命令指揮系統의 심각  
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음. 즉 소련군부는 사회혼란 진압  
및 질서유지 능력을 결여하고 있음.
  - 「소유즈」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아르크스니스 대령, 페트르  
센코 대령, 마카쇼프 대장 등 이른바 「검은 3人幫」은 군부  
내 일부세력으로서 국민적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음.
- (2) 향후 蘇聯軍部는 조직화되고 있는 정치적 역량을 바탕으로

軍部の 利害와 직접 관련된 사안에 관해 改革派와의 협상과 타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바, 軍部가 고르바초프의 權力 基盤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희박함.

## 라. 광부 파업 진정 가능성

- (1) 현재의 석탄광부 파업사태가 蘇聯經濟의 危機 진전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최근의 발전추세에 비추어 광부파업은 진정국면에 있음.
  - 일부의 니켈·보크사이트 등 다른 광산노동자들과 모스크바 철도노동자와 독립운수노조 등이 동조파업 또는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전체 노동인구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함.
  - 4. 2부터 시행된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전체 노동자의 동요를 유발, 罷業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聯邦政府의 인금·연금인상 등 補償措置로 진정국면에 있음.
  - 시베리아 쿠즈네츠크炭田의 파업은 러시아공화국과 연방정부의 협상 결과, 탄좌의 관할권이 러시아공화국으로 이양되었으며, 광산들이 완전한 경제적 독립을 인정받고 광원들이 소유와 경영형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점차 진정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소련 최대의 탄광지대인 우크라이나 도네츠크炭田의 광부들도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진 우크라이나의 산업을 더 이상 악화시킬 수 없다는 인식에서 조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임.
- (2) 즉 대다수 勞動者들이 국가적 혼란을 야기시킬 罷業의 부정적 효과와 연방정부의 양보 한계를 인식하고 있고, 또한 聯邦政府의 정책이 공화국경제의 자주권과 탄광경영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어, 炭鑛罷業이 다른 산업

노동자에게 파급되거나 소련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은 희박함.

#### 마. 民主化의 계속 추진

- (1) 페레스트로이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蘇聯政治와 社會의 多元化 추세에 비추어, 향후 蘇聯이 민주주의적 변혁을 중단, 스탈린주의적 전체주의로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함.
  - 현재 蘇聯에는 정치와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국민들의 이해가 각종 집단을 통하여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어, 획일적인 전체주의적 통치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에 있음.
  -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하여 蘇聯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지향하여 온바, 이는 소련정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여 왔음. 이러한 民主主義的 政治行態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데에는 적지않은 시일을 요할 것이나, 蘇聯政治가 개인 또는 일부 집단의 자의적 정책결정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은 희박함.
  - 따라서 향후 蘇聯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혼란에 직면한다 하여도 기왕의 民主化를 중단하고 예컨대 中國式 改革을 추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2) 그러므로 향후 蘇聯政治의 장래는 各政派 간의 이해관계가 조정·타협되는 과정을 통하여 규정되어질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는 蘇聯政治의 급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적지않은 政治的 混亂이 거듭될 것임을 의미함.

#### 바. 經濟危機 극복 위한 노력 강화

- (1)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4. 9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非常經

濟計劃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4. 23 고르바초프와 9개공화국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승인되고, 최고회의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됨.

○ 非常經濟計劃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91년말까지 정치적 파업중지, 공화국과의 조정위원회 설치, ②92. 10. 1까지 자유시장가격체제로의 전환 완료, 소비자물가 연동제에 관한 법률 제정, ③2/4분기중 민영화계획 마련, 적자경영회사의 민영화, ④대외무역업무의 분권화, ⑤루블화의 태환성을 위한 외환거래체제 개발, ⑥자유경제 지역 창설, 외국투자 유치, ⑦연방법률과 상충하는 지방정부의 결정을 유보하고, 新연방조약 체제내에서의 협력을 거부하거나 연방정부예산에 기여하지 않는 공화국에 대한 보조 철회.

○ 동시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5. 1부터 핵심경제 부문에 대한 엄격한 實務管理體制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힘.

(2) 그러나 중앙통제경제체제에 익숙해 온 官僚들의 타성과 저항 및 市場메카니즘의 미비 등에 비추어 이러한 非常經濟計劃案이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나, 적어도 이 案이 9개 공화국 지도자 간에 합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經濟混亂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됨.

#### 사. 新聯邦條約 體制의 추진

(1) 3. 17 실시된 國民投票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시한 새로운 聯邦條約案이 압도적 다수로 지지됨에 따라 구성공화국의 분리주의로 진통을 겪어 온 蘇聯은 연방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共和國의 自主權을 보장하는 「國家聯

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 國民投票에 발트3국 및 몰다비아,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등 6개 공화국은 참여하지 않았으나, 소연방 최고회의는 3. 21 國民投票 結果를 투표거부 공화국에도 강제 적용할 것임을 결의함.
  -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4. 19 일본방문중 新聯邦條約에서 독립을 원하고 있는 6개 공화국의 참여는 적어도 한시적으로나마 포기한 상태라고 밝혀, 9개 공화국 만의 聯邦條約이라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함.
  - 4. 23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열전을 포함한 9개 공화국 지도자가 서명한 共同聲明은 6개 분리주의 공화국에 새 연방조약 가맹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되, 가맹하지 않은 공화국은 聯邦의 「共同經濟圈」에서 제외될 것임을 경고하고 연방조약 가입 공화국에게는 最惠國待遇가 베풀어질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獨立國家로서의 실질적 自立能力을 결여하고 있는 6개 분리주의적 공화국도 고르바초프 정권과 타협, 合理的 解決方案을 모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2) 한편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9개 공화국 지도자들은 共同聲明을 통하여 향후 6개월안에 새 憲法을 제정하고, 새 헌법에 입각한 聯邦大統領의 直接選舉와 모든 聯邦政府要職 選舉 실시에 합의함.
- 新聯邦體制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聯邦政府의 權限 縮小問題와 관련한 異見調整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聯邦維持에 합의한 現狀況에서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시한 新聯邦條約案이 큰 수정없이 확정될 가능성이 큼.
  - 新聯邦憲法 하에 새로운 聯邦大統領選舉가 直接選舉로 실시

될 경우, 고르바초프의 再選 가능성을 확신할 수는 없으나, 保·革間의 조정자로서 유력한 權力基盤을 갖고 있는 고르바초프에게 유리한 결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